野 "수능 대혼란" vs 與 "카르텔 혁파" 尹발언 설전

국힘 "사교육 가정경제 위협"
민주 "수능 5개월 앞 교육계 혼돈"
"정부 日 오염수 1일 1변명" 비판도

여야는 21일에도 윤석열 대통령의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관련 발언을 두고 설전을 주고 받았다.

국민의힘은 야권의 비판 공세를 두고 국정에 훼방을 놓기 위해 혈안이 돼 있다며 맞받아쳤고, 더불어민주당은 교육계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전방위 공세를 이어 갔다.

이철규 사무총장은 이날 SBS 라디오에 나와 "교육시장 공급자인 일부 강사들 연수입이 100억원, 200억원 가는 것이 공정한 시장가격이라고 볼 수 없지 않나"라며 사교육 업계를 정조준했다.

이 총장은 사교육 시장에 대해 "초과이윤이 있을 때는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주면서 그 피해를 바탕으로 초과이익을 취하는 것은 범죄이고 사회악"이라고도 말했다.

윤희석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망국적 사교육은 일부 업계 종사자들의 배만 불릴 뿐, 학생들을 힘들게 하고 가정 경제를 위협한다"고 논평했다.

민주당을 향해서도 "수능 대혼란', '교육 참사'와 같은 자극적 언사로 학생과 학부모를 우롱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사교육 이권 카르텔' 혁파에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장예찬 청년최고위원도 BBS 라디오에서 "특정 일타 강사들이 1년에 수십억도 아니고 수백억을 버는 현재 구조, 현재의 교육 체계가 과연 정당하고 제대로 된 것인가"라고 따졌다.

국민의힘은 수능에서의 킬러 문항(초고난도 문항) 배제는 지난 대선 당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약이었다는 점을 들며 야당 공세에도 적극적으로 차단막을 쳤다.

당 소속 정우택 국회부의장은 이를 두고 "민주당의 국정훼방, 국론분열용 무조건적 반대가 어느 정도인지 보여주는 사례"라고 페이스북을 통해 쏘아붙였다.

이에 대해 민주당 송갑석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교육의 '교'자도 모르는 대통령 말 한마디에 수능을 5개월 앞둔 수험생과 학부모, 교육계가 혼돈에 휩싸였다"며 "이것이 정상적인 국정운영인가"라고 지적했다.

정청래 최고위원도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수능은 (문제) 출제 위원들에게 맡기고, 무능한 아마추어는 제발 가만히 있기 바란다"며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고 했다.

김영진 의원은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나와 "1980년대 '땡전 뉴스' 같은 것을 원하나"라며 "그보다는 전문가들이나 (소관 부처의) 장·차관이 정확히 얘기해 절제된 형태로 대응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정부 대응 비판도 이어갔다.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은 "핵 오염수 해양투기, 전 국민이 반대한다", "괴담 몰이 중단하고, 해양 투기 저지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전열을 가다듬었다.

이재명 대표는 정부의 일일 브리핑을 두고 "브리핑을 들어보면 일본 대신 '1일 1변명'을 해주고 있다"고 비난했다.

민주당은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반대 서명운동 참여 인원이 지난 18일 100만 명을 넘은 것으로 파악하고 이 기세를 몰아 반대 여론 결집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김영호 간사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들이 21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수능 관련 발언에 대해 사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 '이태원 참사 특별법' 당론 채택

이달 내 패스트트랙 지정 방침…"노란봉투법 30일 처리 가능성"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입법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안건을 처리하기로 했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책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히고 "6월 안에 특별법을 신속처리안건에 지정하지 않으면 통과되기 어려운 여건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변인은 '특별법을 기존 원안대로 패스트트랙에 올릴 계획이냐'는 질문에 "기본적으로 민주당이 추진하던,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된 법안을 중심으로 논의하고 있다"며 "일단 큰 틀의 방침이 (의총에서) 의결된 것"이라고 답했다.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패스트트랙 지정은 시한을 정해 여야가 신속하게 협의 처리하자는 것일 뿐 내용을 지금 확정한 것은 아니다"라며 "최종적으로는 여야 협의를 통해 의결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노란봉투법과 관련해선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가능성이 있다.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으나 (지도부는) 그렇게 검토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역주행' 尹정부, 법폭 통치 중단하라"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 비교섭단체 대표연설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는 21일 "윤석열 정부는 언론 길들이기, 시행령 통치, 거부권 통치, 사정기관을 동원한 '법폭 통치'를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배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윤석열 정부의 1년은 '역주행'으로 가득한 총체적 파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집권만 하면 언론부터 길들이려는 여당의 못된 습관이 여전하다"며 "국민의힘이든 더불어민주당이든 마찬가지로, 마치 서로가 '내로남불'의 무한궤도에 빠진 것처럼 역할만 바꾼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엔 윤석열 대통령이 전면에 나섰다"며 "야당은 만나지도 않고, 듣기 싫은 언론은 좌파 언론으로 매도하고, 법은 다 무시하고 시행령으로 밀어붙이고 국회 입법은 거부하는 것도 민주주의로 부를 수 있느냐"고 했다.

또 "노동 기본권이 완전히 역주행한 시간"이라며 "윤 대통령은 취임 후 노동 개혁을 시급한 과제로 꼽았지만, 개혁을 가장한 노조 탄압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배 원내대표는 "부당한 노동 탄압에 맞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일하는 시민 기본법'(신노동법)으로 노동 기본권을 지켜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광주시의회, 윤리심사 자문위원 2명 위촉

정인기·차경희 위원에 위촉장

광주시의회가 21일 윤리심사 자문위원 2명을 신규 위촉했다.

광주시의회는 이날 시의회 열린시민홀에서 법무법인 동명파트너스 소속 정인기 변호사와 광주여성의 전화 부설 여성인권상담소 차경희 소장을 윤리심사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위촉장을 수여했다. 윤리심사 자문위원은 모두 7명으로, 이중 2명이 임기가 만료됐다.

이들은 앞으로 2년 동안 의원의 겸직과 영리행위 등에 관한 의장의 자문과 윤리심사·징계에 관한 윤리특위의 자문을 맡는다.

정무창 의장은 "의회 독립성과 자율성 강화와 함께 의회청렴도 향상과 의원의 윤리성 강화는 소홀히 할 수 없는 문제가 됐다"며 "시민의 뜻을 실현하는 깨끗하고 투명한 의회를 구현할 수 있도록 전문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고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위촉식 이후 윤리심사자문위는 회의를 열고, 특위 운영방안과 의원 징계 심사 등에 관해 논의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여의도 브리핑

석유화학산업 위기 대응 경쟁력 제고방안 논의

김회재 의원, 오늘 국회서 포럼

더불어민주당 김회재(여수을) 국회의원은 22일 석유화학산업 위기 대응을 위한 '2023 석유화학산업 위기 대응 포럼: 석유화학산업 위기에 대응하는 경쟁력 제고 방안' 포럼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연다.

이날 포럼은 한국석유화학협회, 여수광양항만공사가 공동주관하고,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진흥공사, 여수상공회의소가 공동후원으로 참여하며, 핵심 원료 수급과 물류 혁신, 기반시설 확충, 탄소중립 달성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석유화학산업은 연간 500억불 이상을 수출하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기간산업이지만 고유가로 인한 원료 수급 문제와 EU 탄소국경제도, RE100 등 세계적 탄소무역장벽으로 인해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원료 수급 안정성 확보 방안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포럼에는 박성현 여수광양항만공사 사장, 송유종 한국석유화학협회 부회장 등이 참석하고,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진흥공사 등 정부·공공기관들과 석유화학社들이 함께 할 예정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